

통신산업의 세계화추세와 한국의 기업



필자약력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전자공학과 졸업.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전자공학 박사 취득.
- Institute for Aerospace and Astrophysics 수료.
- 대우실업, 대한통신등근무.
- 대한전자공학회 이사, 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역임.
- 현 한국통신학회 이사, 정보통신 진흥협회 부회장, 한국통신 기술협회 이사.

박성규/대우통신(주) 사장

1. 序

현대 사회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로까지 인식되고 있으며, 각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세계의 모든 경제활동 단위들은 이 목표를 실물재화와 서비스로서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나 통신산업 그 자체가 인간사회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적,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것이 그 기술이나 산업의 근본적인 목표이므로, 그 자체가 '세계화 추세'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화 추세라는 것이 전세계의 복리수준의 총합계를 향상시킨다는 경제원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나, 한 국가의 산업이나 개개의 회사 입장에서 이 '세계화' 추세는 종종 단순히 자신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외국 업체에게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통신업제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욱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영업력이 강력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쟁자들로부터 우리의 내수시장을 지켜야 하며, 동시에 개발도상에 있는 타지역에서는 이 부문에 진출하기 위하여 위의 선진국기업들과 가격경쟁과 성능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성을 극복하고 한국의 통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계화의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 산업의 '세계화' 추세

현재와 같이 전세계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계화 추세가 가속될 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그 첫번째로서 산업내에서 각 경쟁자들이 경쟁상대를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 점차 첨예한 경쟁만을 추구한다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측은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의 장벽 안으로 숨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빈국과 부국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전세계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로서, 한 산업범주에 속하는 상·하 그룹간에 상호 번영을 목표로하는 국제적인 사업관계가 다각적으로 맺어지면서, 참여하는 모든 국가, 모든 기업간의 상호존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가 형성되고, 그 결과는 첫번째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바람직한 결과로 유도될 것이다.

'산업의 세계화'란 각각의 국가가 기업의 세계적인 단일시장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통합유럽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블럭경제화 추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블럭경제화를 통하여 역내
국가간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용이하여지며, 기술이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됨은 물론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블럭경제가 역외 거래를
감소시키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점차 세계 각국이 경제개방을 가속시키면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이제는 전 산업에서의 '세계화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개방된 경제체제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년사이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사회의 생산구조가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기본이되는 기술력은 경제규모의 성장에 비해 그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상태속에 취약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정책에 매력을 느끼게 되지만,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시장개방을 목표로하는 외국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제원리에 그 정책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계적인 단일시장을 가정한다면, 모든 자원은 그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당연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
비교우위의 원리는 모든 산업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통신산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3.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다양성

통신산업은 이미 '세계화'과정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점차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이 세계화 추세가 아무 제한이 없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데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려하여야 할 것이 통신산업 혹은 정보통신기술이 한 국가에서 가지는 중요성이다. 통신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제품들은 그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이 산업자체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통신 시스템이나 단말기는 내수 소비재 혹은 생산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입장에서는 철도나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통신산업은 그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각 구성원이 요구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점차 고도화됨으로써 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통신산업자체가 반도체 설비등 대단위 투자를 요하는 장치 산업인 경우가 빈번하며, 타산업에 대한 원천기술로서의 중요성도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통신산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분야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중요성이외에도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각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의 형태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각국마다 상이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통신수요가 상이할 수 밖에 없다는 당연한 차이보다는, 각국에 대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다른 통신기술보다도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과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무선통신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로서, 곧 예상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적체현상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통신산업이 세계적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기술교류가 활발해 진다면, 한 국가가 모든 부문을 독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각 국은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갖는 부문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유의 통신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4. 선택의 문제

많은 국가들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통신사업의 중요부분을 국가 독점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독점형태의 산업이 세계화 또는 단기적으로 시장개방에 얼마나 취약한가는 한국 담배인삼공사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매청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국가독점기업이며, 이러한 독점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외국의 압력에 의하여 급작스러운 시장개방의 길로 들어서자, 한국담배시장은 하나의 국내기업과 그 규모에서 이 회사를 훨씬능가하는 다수의 외국기업 간의 각축장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시장개방 3년만에 20%의 시장 점유율을 잃고 말았으며, 현재도 빠른 속도로 나머지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각 기업이나 산업의 규모와 수익율이 아니라,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것이다. 이 경쟁력이야말로 말로 세계화된 시장을 개척하는 유일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신산업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개방을 통하여 결국 도달하게 되는 '세계화된 시장'이라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에 상반되는 보호장치의 개발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 먼저 개방을 하여 상호 경쟁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통신산업의 기술력은 곧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 그 자체는 그 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